

한국당 목표는 박영선·김연철 지명철회

조동호·최정호 후보 낙마에도 경질요구 공세 강화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 가능성 정국 변수로

여야는 장관 후보자들의 국회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1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의 자진사퇴와 청와대의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의 지명철회 여진 속에 첨예한 공방을 이어갔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추가 낙마를 위한 공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인사검증 실패를 고리로 청와대를 정조준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가 낙마는 없다'라는 입장과 함께 야권의 요구가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맞받았다.

이에 따라 청문보고서 채택의 1차 시한인 이날 보고서 채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야당의 반발이 특히 심한 박영선·김연철 후보자들의 경우 결국 청문보고서 없는 임명이 강행될 가능성도 제기돼 정국 향배를 좌우할 변수로 떠오르

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김연철·박영선 후보자와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조현욱 인사수석을 향해 집중포화를 쏟아내며 양방향 공격을 이어갔다. 황교안 대표는 경남 창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의 인사발굴과 검증 역량이 목불인견 수준"이라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현욱 인사수석을 '조 남매'라고 하는데 조 남매가 망쳐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 개각 2기는 모두 자책 미달인데 2명의 비(非)도인사를 낙마시키므로써 박영선, 김연철 후보를 지키려고 하고 있다"며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욱 인사수석에 대한 청와대의 경질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도 '인사 참사'를 부각하며 여권을 향한 공세를 강화했다. 김관영 원내

대표는 당 회의에서 장관후보자 낙마에 대해 "부담 없는 인사만 경질할 것으로, 꼬리자르기도 되지 못한다"면서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욱 인사수석은 문제인정부 청와대 무능의 대명사가 됐다. 두 분을 하루속히 물러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추가 낙마를 위한 야권의 공세를 정경운 정치공세라며 일축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공세를 더이상 해선 안 된다"며 "오늘 5명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인사청문법에 따라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이 협조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선 장관 후보자들의 낙마 사태에 "검증이 더 철저해져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다(이해찬 대표), "자성의 계기로 삼겠다"(홍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중심으로 국민 여론을 고려해 몸을 낮추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한편, 장관 후보자들의 추가 낙마를 놓고 여야 간 기 싸움이 치열하게 펼쳐지면서 청

문보고서 채택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더욱 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 1차 시한인 이날까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 안에서 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할 수 있다. 사실상 '청문보고서 송부 최종 시한'인 4월 11일까지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보고서 채택 없는 대통령의 장관 임명이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진영 행정안전부·문성혁 해양수산부·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의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부적격' 의견을 첨부해 채택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자 3명의 보고서 채택을 위한 해당 상임위원회의 전체회의는 4·3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마무리된 이후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박영선 후보센터기안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채택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여야간의 공방은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 '한국당 축구장 유세' 십자 포화

경남 창원 성산 4·3 보선...4당 '대표 사퇴·후보 사퇴해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축구장 선거유세'를 놓고 1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이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장종하·신상훈 대변인은 이날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30일 경남FC 홈경기에서 황교안 대표와 강기운 후보, 한국당 선거운동원은 축구경기장 내 선거운동은 금지돼 있다는 적극적인 설명과 제재에도 경기장에서 막무가내 식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당의 막무가내식 선거운동으로 지난해 리그 준우승과 도민구단 최초로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ACL) 진출을 이뤘고 도민과 함께 하는 명문구단을 목표로 함께 전진하는 구단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황 대표와 한

국당은 구단과 도민에 사과하고 법적, 도의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바른미래당도 이날 창원성산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환 후보 명의로 성명을 내고 황 대표 사퇴와 강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이 후보는 "경남FC 경기장 난입 사태에 대해 황 대표는 규정을 뚫었다고 하고 강 후보는 선관위가 관했다고 했다며 남 탓을 하고 있다"며 "모르쇠로 책임 회피에 급급한 황 대표를 창원시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대변인 브리핑에서 "정치적 페도 부족한 건지 한국당이 이제 정치 민폐까지 끼치고 있다"며 "물리적 정치인들로 인해 스포츠를 즐길 창원시민, 경남도민의 권리가 빼앗기는 피해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결론 못 낸 '일하는 국회법'

운영개선소위...한국당 반대

국회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는 1일 회의를 열어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을 논의했으나 여야 이견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일하는 국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일부 개정안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주 1회 이상 열도록 의무화하고 법안 심사를 위한 소위 외에 현안 등 심사를 위한 소위를 설치해 이원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소위의 주 1회 의무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폈다. 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의 매주 1회 개최 의무라고 하는데 무슨 국민학교(초등학교) 어린이회도 아니고 기계적인 접근은 (안 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이 민주주의이고 자율성인데 무슨 5공(5공화국) 때도 아니잖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일하는 국회법 처리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얘기는 단지 20대 국회만의 얘기는 아니었다"며 "법안심사소위는 국회의 교착상태와 무관하게 국회의원의 본연의 역할인 법을 만드는 로메이커(lawmaker)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박경미 의원도 "컨센서스(합의)를 이루고 있는 법안심사소위의 빈번한 개최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이해찬 대표 민주당 최고위 발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靑, 조국·조현욱 경질 요구 선 긋기

"보도 자극적...특별한 문제 파악된 것 없다"

청와대는 1일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 부실 논란을 두고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욱 인사수석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된 것에 대해 "인사·민정 라인에서 특별한 문제가 파악된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민정-인사라인 경질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문제가 없으니 특별한 조치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야권에서는 두 수석이 사퇴해야 한다며 공세

를 펴고 있지만, 청와대는 두 수석의 거취에 대한 논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은 셈이다.

윤 수석은 "이번 인사검증 과정에서 인사·민정수석이 뭐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지에 대해 제가 모르겠다"라며 "구체적으로 특정한 대목을 지적하며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부분을 잘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면, 누가 잘못했는지 따질 수

가 있다. 하지만 언론에서도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은 못 봤다"라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조동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낙마와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전문가를 모실 때는 항상 이런 문제가 있다"며 "능력을 우선시할 거냐, 국민 정서에 기준을 맞출 것인지 정부쪽 판단을 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쪽 판단을 잘못된 것에 대해 인사·민정라인의 책임이 있지 않냐"라는 물음에는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는 상황까지는

문제 되는 것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답했다. 윤 수석은 "언론이 자극적으로 보도한 면도 있다. 조 전 후보자의 아들이 포르쉐를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 가격이 3500만원이 채 안 된다"라며 "가격 기준으로 큰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량이 외제차라고 하는데 외국에 있으니 당연히 외제차를 타지 않았겠다. 미국에서 3000만원 상당의 벤츠-포르쉐를 타는 것이 무슨 문제였겠냐"라며 "그런 문제들이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했다.

조국 수석이나 조현욱 수석이 개각 이후 사의를 밝힌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도, 윤 수석은 "들은 적 없다"라고 답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전남차원 올 5·18 기념사업 계획은?

도의회, 오늘부터 도정 질의

전남도의회가 2일부터 10일간 열리는 제330회 임시회 기간 중 5·18 민주화운동의 전국화·영산강 하구둑 해수유류, 전남지역 의대 설립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도정 질문에 나선다.

도의회는 특히 이번 '일본일당' 및 '일팔질문-답변' 방식의 도정 질문을 병행하면서 전남도 차원의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계획, 세월호 기역공간 조성, 성평등지구 제고방안 등 도정 전반에 대한 정책 검증과 추경에 나설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에는 문행주(화순 1·민주), 박문옥(목포 1·"), 김길용(광양 3·"), 이혁제(목포 4·"), 임종지(순천 2·"), 유성수(장성 1·"), 이보라미(영암 2·정), 최현주(비례·정의), 우승희(영암 1·민주), 최무경(여수 4·민주), 박진권(고흥 1·"), 김경자(비례·"), 강경희(여수 6·") 의원 등이 주요 현안에 대한 도정 질문을 벌인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전남도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7조 9366억원)도 심사에 의결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러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게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장성 심계면 죽림리 1536㎡ 백일향·구지뽕나무 200여주있음 4800만원
-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추월산 가는 길 2268㎡ 1억5800
- 산안 자연면 한운리 해수욕장 접 1654㎡ 별장 등 적합 분할가능 평당65만원
- 무안군 해제면 바다 150m 대지 790㎡ 팬션 전원생활적합 4천만원
- 영광 백수해안도로 칠산바다 전망 좋은 1130㎡ 1억2천

투자·매도·교환

- 운암동 대형아파트 지하 205㎡ 사무실 등 다용도 교환가능 1억8천
- 충남 태안군 안면면 정당리 대지 등 1749㎡ 교환가능 1억6천
- 영광 영산면 신성리 땅 3088㎡ 주택 95㎡ 유실수 100여그루식재 2억
- 서구 이파트단지 반지하노래방 265㎡ 룸7 교환가능 임대중임 4억7천
- 강진 성전면 월출산 밑 4차선 접 4630㎡ 대형 저수지 인근 요양시설 적합 5억
- 무안읍 원동·다세대부지 군청 옆 1031㎡ 투자에도 좋은 2억
- 담양 금성면 추월산 가는 길 땅 808㎡ 커피숍·식당 적합 3억4천
- 충장로5가 버스도점 상입지 494㎡ 생활주택 사육적합 8억9천

상가건물

- 충장로4가 땅 261㎡ 건물 1128㎡ 은행 11억 전세 1억8천 월 1000. 25억
- 동구 지산동 땅 4732㎡ 건평 652㎡ 식당적합 18억
- 서석동 4층상가 조대 앞 땅 405㎡ 건평 919㎡ 보증금 6천 월 280 임대 중 12억
- 백운동로타리와 대성로타리 사이 대로면 땅 258㎡ 건물 265㎡ 8억
- 월산동 무진중 부근 버스도 점 토지 155㎡ 건물 4층 263㎡ 4억천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특급물건

- 나주 남평읍 우산리 61111㎡ 지구단위 해서 아파트 적합 222억
- 장흥 수문해수욕장 2346㎡ 팬션 등 적합 원룸부지와 교환가능 4억7천
- 북구 용두동 6차선접 4899㎡ 물류창고 등 다용도 적합 45억
- 순천 낙안민속마을 저수지 옆 팬션 대지 2180㎡ 팬션3동 372㎡ 8억
- 나주 금천면 국도 접 주거지·대지·자연녹지 25714㎡ 은행 12억 매도 24억
- 북구 북동 금남로 57가역 대로점 중심상업지 364㎡ 사육 등 적합 12억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신창동 근린상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1174번지, 가도빌딩 (진흥고,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건물)
- 대지지분 52평, 건물 170평(실100평)
- 4층중 2층 201호 전체, 준주거지역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역사문화공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좋은
- 보증금1억에 월400만원 임대가능
- 감정/시세-11억
- 급매-8억

문의. 010-3605-5000

다스코진 세라코진

KOSPI 상장기업 동아에스텍의 새 이름 다스코!
세라믹 전문기업 동아세라믹의 새 이름 세라코!

태양광발전소 사업 관련 모집

1. 태양광발전소 사업주 모집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보유하고 소유한 분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소유권이유가 완료된 분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임대했거나 임대할 예정인 분
2. 태양광발전소 영업대리인 모집
 - 태양광발전소 부지 소유가 가능한 분
 - 태양광발전소 사업주로부터 사명을 위탁 받은 분
 - 대토 단대사가 필요한 태양광발전소 사업주에게
3. 태양광 영업 인제 모집

ONE-STOP TOTAL SOLUTION
태양광사업 A to Z, 200여개 기업(태양광, PV, 태양열)
문의처: 05340-05440-2542, jshang@daesco.co.kr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핵심 인재를 모집합니다!

부 문	담당업무	자격요건	근무지	
다 스 코	전략기획	전략기획	• 사업/직무성 분석 가능자, 경력 10년 이상	화 순
	신사업개발	영업	• 태양광영업 경력자	
세 라 코	수입관리	상계영업	• 상계영업 경력자 (경력직)	나 주
	세라믹 (영업/개발)	영업	• 상계영업 경력자	
		R&D	• 영업 관련학과 전공자 유대	

• 접수처: 담양 06320-2527, seoul@daesco.kr, 접수기간: ~ 8월31일까지